

재혼가족 계부모의 역할긴장과 우울의 관계에서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연구 - 계부모의 성차를 중심으로 - *

김 다 애

(상명대학교복지상담대학원)

조 은 숙**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본 연구는 계부모역할에서 오는 역할긴장이 계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성차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재혼가족적응에 가장 어려움이 되는 문제인 계부모 역할긴장과 그 결과로서의 우울, 매개변인으로서의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재혼자 인터넷카페 및 리서치회사를 통해 18세 이하 계자녀를 둔 남녀 226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계부모 역할긴장과 우울 수준은 계모가 계부에 비해, 그리고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수준은 계부가 더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역할긴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은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다집단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계부의 경우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이 역할긴장과 우울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반면, 계모의 경우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의 부분매개효과와 더불어 역할긴장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계부모의 역할긴장문제가 우울로 이어지는 매개로서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여성재혼자들이 경험하는 계모역할의 어려움이 남성재혼자와는 다른 양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계부모, 역할긴장, 우울, 의사소통, 성별차이

* 본 논문은 상명대학교 2019년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발전시킨 것임.

** 교신저자 : 조은숙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상명대학교

Tel : 02-781-7782 / E-mail : grace123@smu.ac.kr

I. 서 론

최근 한국 가족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혼과 재혼의 증가이다. 높은 이혼율과 동반하여 급증한 것이 재혼율이다. 통계청(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혼건수는 2017년 현재 전체 혼인건수의 22.1%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재혼의 양적증가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여성이 친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을 기점으로 재혼여성과 초혼남성 커플의 수가 초혼여성과 재혼남성 커플의 수를 초과하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18).

재혼가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혼가족의 성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재혼가족 자녀에 대한 관심보다 적은 편이다. 재혼 계부모, 특히 재혼계모가 경험하는 계자녀양육과 관련된 높은 스트레스(김효순, 2006; Fellmann, Galán & Lloreda, 2008)를 고려할 때 이러한 계부모역할관련 스트레스가 이들의 정신건강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계부모의 역할긴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재혼은 초혼과 달리 이혼, 사별과 같은 구성원의 상실로 인해 새로운 구성원을 충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결혼이다. 각기 다른 가족역사와 주기를 가지고 있는 남녀의 결합은 가족체계를 복잡하게 하며 재혼가족의 취약성을 높인다. 이러한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경우가 자녀가 동반된 재혼가족이다(김효순, 2006).

자녀가 동반된 재혼의 경우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다. 계부모

와 계자녀 간의 관계형성은 몇 가지 이유로 초혼의 경우에 비해 어려움이 있다. 첫째, 계자녀들은 계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친부모 사이에서 ‘충성심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Ganong & Coleman, 2004). 둘째, 재혼가족은 새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부모-자녀관계가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새로 진입한 계부모가 계자녀와 정서적으로 친밀해지기가 어렵다.

또한, 계부모가 부모역할 수행시 경험하는 독특한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계부모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모호성은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역할과중과 더불어, 자신이 이 역할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킨다. 또한 부모역할 자체를 해보지 않았던 계부모의 경우 부모역할 수행의 서투름과 부모로서의 정체성 형성이 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자아불일치의 어려움이 있다(Whitsett & Land, 1992a). 이러한 계부모역할의 어려움은 적절히 대처되지 못할 경우, 계부모의 정신건강과 재혼 부부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가족체계 전체의 기능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Shapiro & Stewart, 2011)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계부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이들의 역할긴장에 대한 관심만큼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정신건강문제가 자녀의 건강 발달 및 가족전체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재혼가족에서 계부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 주제에 대한 드문 연구 중 하나인 김연옥(2002)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계모의 우울정도가 임상적으로 경증 및 중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4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계모들의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하였다.

그렇다면, 계부모의 역할긴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 계부모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될까? 역할긴장이 심리적 어려움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김연옥, 2002; 차연실, 2004) 이 양자를 매개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통해 역할긴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기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계부모의 역할긴장은 역할과중, 역할모호성, 경계모호성, 자아불일치 등의 요소(Whitsett & Land, 1992b)를 지니기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부모 하위체계인 계부모와 재혼 배우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Papernow, 2015). 그러나, 재혼부모들의 경우 민감한 의사소통 주제는 아예 회피함으로써 갈등을 애써 덮고 가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김효순, 2015; Afifi & Schrodt, 2003), 이러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계부모의 역할긴장을 정신건강 문제로 연결시키는 매개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계부모의 역할긴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계부모와 재혼 배우자 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혼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인 계부모 역할긴장 문제(김효순, 2006)가 이들의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기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계부모의 역할긴장과 우울, 그리고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계부와 계모 각각의 집단에서 살펴봄으로써, 성별로 이러한 기제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는 부모역할에 대한 성별 규범이나 계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편견 등으로 인해(Ganong & Coleman, 2004) 역할긴장이 계부보다는 계모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김효순, 2006;

Fellmann et al., 2008)에서 출발한다.

이외에도 부부의사소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결혼만족도나 부부적응도가 계모에 비해 계부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점(김효순, 엄명용, 2007; Fellmann et al., 2008),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는 계모가 계부에 비해 소진(burnout)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Fellmann et al., 2008) 계부와 계모의 경험에서의 성별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계부모의 역할긴장과 계부모-재혼 배우자 간의 소통, 우울 간의 관계가 계부와 계모의 경우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부모의 역할긴장과 우울 간의 관계에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모형이 계부와 계모의 경우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계부모의 역할긴장, 우울,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 수준에서 계부모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계부모의 역할긴장과 우울의 관계에서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계부모의 역할긴장과 우울의 관계에서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계부모의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는 지금까지 재혼가족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던 계부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계부와 계모 간의 경험의 성별차

이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계부모 역할긴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계모와 계부 각각에 대해 검증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해당 변수들 간의 인과 및 매개관계를 탐색하고 성차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재혼가족 역동 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계부모 및 재혼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적 개입방법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계부모의 역할긴장

재혼가족은 외형상 ‘온전한 가족(intact family)’으로 보이지만 가족의 역동에 있어서는 두 개의 핵가족(bi-nuclear family)과 같은 복잡한 역동을 보이며, 이러한 속성은 특히 두 가족이 결합하여 적응해나가는 재혼 초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Ganong & Coleman, 2004). 자녀를 동반한 재혼의 경우 이러한 복잡성은 한층 가중되며, 이는 계부모와 계자녀 하위체계의 문제를 넘어서 재혼가족 전체의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hapiro & Stewart, 2011).

계부모역할의 어려움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계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족적 차원의 규범이나 합의가 부재하다. 둘째, 생물학적 부모가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자녀가 느끼는 충성심갈등은 계부모와 계자녀 간의 친밀감 형성의 장애물로 작용한다(정현숙 외, 2000). 셋째, 가족생활주기나 개인적 발달단계

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될 때 계부모의 부모로서의 정체감, 양육기술 등에 있어서의 준비가 부족하다. 넷째, 원만한 부모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계부모가 스스로 가족의 일원 혹은 부모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필요한데 이러한 ‘가족 경계 모호성’ 문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다(김효순, 하춘광, 2010; Ganong & Coleman, 2004). 다섯째, 계부모 특히 계모에게 부여된 사회적 편견 문제가 있다. ‘사악한 계모’라는 사회적 신화는 계모가 소신있는 계부모-자녀관계(good enough stepmother)를 만들어 나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Hart, 2009). 마지막으로, 계부모와 재혼배우자 간의 부부하위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와 그의 친자녀 간의 삼각관계 형성 등으로 인해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발생되기 쉬워, 계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수록 배우자의 지원과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기제가 작동할 수 있다(Bray, 2005).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계부모는 계자녀양육 및 계자녀와의 관계맺기에서 가중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계부모의 역할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계부모 역할긴장에는 계부모의 역할수행으로 인한 속박감, 수행해야 할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혼란, 부모 및 가족원으로서의 자신의 소속감의 결여와 소외감, 계부모로서의 정체감 혼란 등이 포함된다(Whitsett & Land, 1992b).

계부모의 역할긴장문제는 재혼가족의 가장 큰 스트레스원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계모들의 심리적 건강을 저해하는 중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연옥, 2002). 계부모의 역할긴장 수준은 계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라도 차이가 있어, 특히 계자녀가 청소년

기일 때 계부모의 역할긴장 수준이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효순, 엄명용, 2007).

계부모의 역할긴장 수준은 계부모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계부에 비해 계모의 역할긴장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김효순, 2006; Fellmann et al., 2008; Whitsett & Land, 1992b). 이는 계부와 계모에게 적용되는 부모로서의 성역할규범, ‘사악한 계모’라는 사회적 편견 등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김효순, 2006; 정현숙 외, 2000) 집안일과 양육 등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왔기 때문에, 재혼을 통해 계모의 지위를 획득한 여성의 경우 계모역할에서 역할과중을 경험하게 하기도 한다.

계부의 경우는 다르다. 남성의 역할로 알려진 부양자역할의 경우는 계부가 된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되며, 계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가족역할에서 경험하는 변화는 계모에 비해 훨씬 적다. 그러나, 가부장적 훈육자로서의 아버지상을 내면화한 계부의 경우, 계자녀와의 친밀감 형성 이전에 훈육에 선불리 개입함으로써 가족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재혼 배우자인 친모와 계자녀 간의 친밀관계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Bray, 2005). 이런 상황은 초혼가족의 아버지가 경험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계부로서의 역할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계모와 계부의 역할긴장 경험에서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과 역할긴장

계부모가 경험하는 역할긴장 문제는 재혼으로 결합한 두 가족의 문화차이, 가족생활주

기 차이, 역할기대차이, 친밀감 부재 등의 원인에서 상당부분 비롯된 것이다. 계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역할긴장의 해소를 위해서는 부모하위체계인 계부모와 재혼배우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Papernow, 2015).

재혼부부의 강한 부부 유대는 재혼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요인으로 꼽힌다. 학자들은 재혼가족의 다양한 가족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부관계 만족도라는 것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김효순, 2015; 정현숙 외, 2000; Ganong & Coleman, 2004; Visher & Visher, 1996).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부부 의사소통이다. 부부가 서로의 의사를 곡해하지 않고 기능적,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부부갈등의 소지들을 감소시키며 친밀감을 증진시켜 부부관계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송말희, 이정우, 김수진 2011).

특히 재혼부부들의 계부모 역할긴장해소에는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데(김효순, 2015; 박은주, 2004; Golish, 2003),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실제 재혼부부들의 의사소통은 그리 원활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재혼부부들은 초혼부부보다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갈등 해결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은 더 떨어진다는 것이다(Hetherington, 1992). 또한 이들은 민감한 의사소통 주제는 아예 회피함으로써 갈등을 애써 덮고 가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전혼에서의 상실감, 실패감 등의 상처가 건강하게 극복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역기능적 측면이다(김효순, 2015; 박태영, 김태한, 2010; Affi & Schrodt, 2003; Hetherington, 1992).

이런 맥락에서, 계부모의 양육관련 스트레스인 역할긴장 문제는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계자녀와의 동거여부, 가족경계와 역할경계의 명료성, 계자녀 양육이나 계부모 역할과 관련된 부부의 의견일치, 계모-계자녀 관계의 질 등 계부모의 역할긴장과 관련된 만한 변인들이 계부모의 결혼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효순, 엄명용, 2007; 차연실, 2004; Johnson et al., 2008).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결혼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송말희 외, 2011)는 점을 고려할 때, 계부모의 역할긴장이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역할긴장이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에서의 성별차이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Johnson 등(2008)은 계모들이 계부들에 비해 배우자와의 대화 필요성을 더 느낄 것이므로,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모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는 계부에 비해 더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계모들은 가사분담, 양육분담 등의 역할을 계부들에 비해 더 맡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어머니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사악한 계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혼 부부의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재혼 결혼만족도에 대해서는 성별 비교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남성배우자가 여성배우자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김효순, 엄명용, 2007; Fellmann et al., 2008;

Whitsett & Land, 1992a, 1992b).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이 계모보다는 계부에게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나 이 부분의 실증연구가 부족하다.

계부의 양육참여에 대한 Adamsons, O'Brien & Pasley(2007)의 연구에서는 계부의 경우 재혼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계자녀 양육참여의 양과 질이 좋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계부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이 상당부분 그 배우자의 자녀(계자녀)와의 관계로 이전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역동이 계모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날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계부모 역할긴장과 계부모-배우자 간 관계 양상의 성별차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3. 계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역할긴장 및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의 영향

재혼가족이 경험하는 독특한 스트레스와 적응과정의 어려움은 계부모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계부모 중에서도 특히 계모들의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고하고 있다. 재혼여성은 초혼 여성보다 심리적 안녕의 수준이 낮고 스트레스, 불만, 우울,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Shapiro & Stewart, 2011). 김연옥(2002)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 재혼모의 우울정도가 임상적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정신건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는 우울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이윤주, 김진숙, 2012; 이정윤, 장미경, 2008) 재혼 가정의 경우는 계모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역

할긴장의 문제로 인해 계모로서의 역할긴장이 우울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김연옥, 2002). 그러나, 계부의 역할긴장과 이것이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계부모의 우울에 역할긴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역할긴장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계모(김효순, 2006; Fellmann et al., 2008)의 우울 수준이 계부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다.

계부모의 우울은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부의 의사소통수준이 높아지면 우울수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김경이, 2008). 기혼남녀의 의사소통과 우울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권정혜(2000)는, 배우자가 자신에게 비판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배우자의 의사소통 방식이 역기능적이라고 지각할 때 기혼남녀의 우울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부부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의사소통방식이나 배우자의 비판적 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나 관계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부부 의사소통과 부부관계의 질은 높은 상관이 있다. 부부만족도나 친밀감은 기혼남녀의 우울수준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는데(박경애, 정혜선, 2011), 이러한 관계는 계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나타냈으나(김연옥, 2002), 계부를 대상으로 하여 양적자료로 검증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부모의 역할긴장과 심리적 소진 간

의 관계를 연구한 Fellmann 등(2008)은, 계부모와 배우자 간의 관계만족도가 역할긴장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즉, 계부모의 역할긴장이 계부모-배우자 간 관계의 질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것이 계부모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관계 만족도 대신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뒷받침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재혼 후 배우자의 18세 이하 전혼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계부모이다. 연구대상인 계부모에는, 본인은 초혼이며 배우자만 재혼인 경우와 둘 다 재혼인 경우가 모두 포함되었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총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는 의도적 표집으로 재혼과 관련한 온라인 모임을 통해 인터넷으로 질문지를 송부하여 받는 방식으로 101부를 수집하였다. 2차는 리서치업체를 통하여 28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는 2019년 3-4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수거된 설문지 381부 중 결측치가 있는 자료 155부¹⁾를 제외하고 총 226부를 얻

1) 특히 리서치업체의 조사에서, 본 연구의 대상자 조건(기혼자일 것, 배우자가 재혼자일 것, 재혼배우자에게 18세 이하 전혼자녀가 있을 것)이 하나라도 미충족될 경우 중간에서 응답이 멈춰지면

구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의 모든 과정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IRB 승인번호: BE2019-01-04).

3. 측정도구

1) 계부모의 역할긴장척도

본 연구에서는 계부모의 역할긴장을 측정하기 위하여 Whitsett과 Land(1992b)의 RSIS(Role Strain Index for Stepparents)를 김연옥(1999)이 재혼에 대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과 가족관계를 고려하여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RSIS 척도는 역할구속,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역할에 대한 자아불일치, 가족경계의 모호성, 소외감, 배우자의 정서적지지 등 7가지 하위영역, 총 3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긴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RSIS척도는 국내 재혼모의 역할긴장에 대한 선행연구들(김연옥, 1999; 차연실 2004; 김효순, 2006)에서 사용되어온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변수와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정서적지지’하위영역을 제외하고 6개 하위영역문항 28개만을 사용하였다.

예비조사결과 문항의 하위영역 간 구분이 어렵다는 피드백이 제기되어 요인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구별되는 3개의 하위영역으로 재구성된 척도를 최종 조사에 활용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재편성된 하위 영역은 경계혼란, 역할모호성, 역할구속으로 명명되었으며, 자세한 요인분석 결과는 김다애(2019)에 제시되어 있다.

선행연구(김연옥, 1999)에서 본 척도는 전체 17개 문항이 다수 나오게 됨.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가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96이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묶여진 3개 요인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경계혼란 .93, 역할모호성 .93, 역할구속 .89이다.

2) 계부모의 우울 척도

본 연구에서는 계부모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자가평가 우울척도인 SDS(Self-rating Depression Scale: Zung, 1965)를 사용하였다. SDS척도는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며 심리적인 우울 성향을 측정하는 10개 문항과 생리적인 우울 성향 측정 문항 8개, 전반적인 정동을 측정하는 문항 2개 등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4점 Likert식 척도로 증상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에 따라 우울의 점수를 평가한다. SDS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척도의 문항 중 10개의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Zung(1965)에 의하면, SDS점수가 50점 이상일 경우 임상적 우울증상이 있다고 판단한다. Zung(1965)이 개발하였던 척도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연구에서는 47점을 절단점으로 제시하고 있어, 47점 이상일 경우 임상적으로 우울하다고 판단한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Zung(1965)의 연구에서 .92, 이영호와 송종용(1991)의 연구에서는 일반인집단에서 .79, 우울 환자 집단에서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2였다.

3)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 척도

본 연구에서는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ENRICH(Evaluation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Olson, Fournier & Druckman, 1982)의 11개 하위영역 중 부부 의사소통 하위영역만을 사용하였다. ENRICH는 총 16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의사소통 영역은 총 10문항이다.

의사소통 문항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배우자에게 이해받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 각 항목은 5점 Likert식 척도이며, 3개의 문항은 역채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판 ENRICH검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었고(김덕일, 박재우, 송원영, 이지연, 2009), 당시 의사소통 척도의 신뢰도계수는(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의사소통 척도의 신뢰도계수는(Cronbach's α)는 .92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2.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척도의 하위영역재구성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검증을 위하여 Cronbach의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집단별 차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계부모의 역할긴장, 우울, 그리고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간 관계 확인을 위해 Pearson 상관계수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 검증을 위하여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를 확인하였으며, 매개방식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의 절차를 실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에 있어서의 계부모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의 특성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 참여자 총 226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기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N=226

변인	구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109	48.2
	여성	117	51.8
연령	20대	3	1.4
	30대	97	43.0
	40대	100	44.2
	50대	26	11.4
	60대	1	0.4
	고졸(중퇴포함)	36	15.9
교육 수준	전문대졸(중퇴포함)	61	27
	대졸(중퇴포함)	121	53.5
	대학원졸(중퇴포함)	8	3.6
월 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상	4	1.8
	200만원 초과 - 400만원 이상	47	20.8
	4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상	104	46.0
	600만원 초과 - 700만원이상	71	31.4

준으로 계자녀의 연령을 18세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에 계부모 본인의 연령은 따로 제한하

〈표 2〉 조사대상자의 가족 구조 특성 N=226

변인	구분	빈도 (명)	비율 (%)
현재혼인 유지기간	2년 미만	29	12.8
	2년 이상 -	83	36.7
	4년 미만		
	4년 이상 -	56	24.8
	6년 미만		
	6년 이상	58	25.7
결혼형태	부부 둘 다 재혼	122	54.0
	남자 초혼 + 여자 재혼	48	21.2
	여자 초혼 + 남자 재혼	56	24.8
결혼상태	초혼(혹은 동거)	100	44.2
	이혼 후 재혼 (혹은 동거)	110	48.7
	사별 후 재혼 (혹은 동거)	16	7.1
응답자의 계자녀 현황	계자녀 1명	188	83.2
	수 2명	38	16.8
현 배우자와의 자녀	있음	85	37.6
	없음	141	62.4
재혼 전 가족	전혼 있음	86	64.2
	자녀 없음	48	35.8
구조* (N=86)	전혼 1명	78	90.7
	자녀 수 2명	8	9.3

*이 항목은 본인이 초혼인 계부모는 제외되었음 (N=86)

지 않았으나, 표집결과 20~60세 연령에 분포하고 있었다. 평균연령은 41.5세이며 계부는 41.6세, 계모는 41.5세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대졸이 53.5%, 월가구소득 400만원 초과자가 77.4%로 교육과 소득수준이 전체 인구에 비해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8세 이하 계자녀가 있는 계부모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재혼남녀의 평균연령보다 다소 젊은 연령대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8).

2) 조사대상자의 가족 구조 특성

조사대상자 계부모의 혼인유지기간은 2년 이상 - 4년 미만의 부부가 83명(36.7%)로 가장 많았고, 부부 둘 다 재혼인 경우가 가장 많은 122명(54.0%)를 나타내었으며, 본인의 전혼자녀가 있는 경우가 86명(64.2%), 무자녀는 48명(35.8%)이었다. 응답자의 전혼에서 낳은 자녀 수는 1명이 78명(90.7%), 2명이 8명(9.3%)으로 전혼자녀 1명을 데리고 재혼한 경우의 비율이 높다. 현재 재혼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 유무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85명(37.5%)이었다.

3. 계부모의 역할긴장, 의사소통, 우울 수준의 성차

계부모의 역할긴장, 의사소통, 우울 수준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결과, 세 변수 모두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3 참고).

먼저 역할긴장수준이 성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t검정한 결과, 계부(M=61.54)보다는 계모(M=69.55)가 부모역할긴장이 크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t=-3.71, p<.001$).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에서도 성별에

〈표 3〉 계부와 계모의 역할긴장,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 우울 수준의 차이 N=226

변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
역할긴장	계부	61.54	14.65	-3.71	.000
	계모	69.55	17.53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	계부	29.25	8.53	2.05	.041
	계모	26.66	10.27		
우울	계부	41.75	9.35	-3.86	.000
	계모	47.11	11.37		

다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t=2.05$, $p<.05$) 계부($M=29.25$)가 계모($M=26.66$)보다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의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부모의 우울 수준에서도 성별차이가 나타났다($t=-3.86$, $p<.001$). 계모의 경우 47.11의 평균을 나타내 41.75를 나타낸 계부에 비해 유의미하게 우울수준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임상적 우울정도의 판정 기준인 47점(이영호, 송중용, 1991)을 기준으로 볼 때 계모의 우울평균점수가 임상적으로 경증 수준의 우울을 나타냈다.

측정변수의 정규분포 가정은 왜도와 첨도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왜도의 절대값이 모두 2 이하이며, 첨도는 모두 7 이하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4 참고). 또한 모든 측정변수 간 상관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역할긴장의 측정변수는 의사소통 측정변수들과 부적상관을, 우울 측정변수들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의사소통 측정변수들은 우울 측정변수들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표 5 참고).

〈표 4〉 측정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N=226

		M	SD	왜도	첨도
역 할 긴 장	경계혼란	23.27	7.03	.45	-.49
	역할모호성	27.67	7.20	-.29	-.77
	역할구속	14.74	4.24	.00	-.91
의 사 소 통	의사소통1	2.78	0.96	.04	-1.15
	의사소통2	2.77	1.13	.18	-1.12
	의사소통3	2.82	1.13	.17	-1.10
우 울	우울I	2.19	0.52	.12	-.58
	우울II	2.18	0.58	.22	-.41
	우울III	2.32	0.65	-.11	-.59

4. 주요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매개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자료가 구조방정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Bandalos(2002)는 모형적합도 지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단일차원의 측정도구의 문항꾸러미를 만들어 구조방정식의 측정변수로 사용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하위요인이 없었던 의사소통과 우울 변수에 각 3개의 문항꾸러미를 만들어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5〉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226

		1	2	3	4	5	6	7	8	9
역 할 긴 장	1. 경계혼란	1								
	2. 역할모호성	.714**	1							
	3. 역할구속	.699**	.727**	1						
의 사 소 통	4. 의사소통1	-.650**	-.515**	-.547**	1					
	5. 의사소통2	-.597**	-.545**	-.536**	.706**	1				
	6. 의사소통3	-.661**	-.598**	-.552**	.719**	.698**	1			
우 울	7. 우울I	.644**	.480**	.628**	-.598**	-.643**	-.637**	1		
	8. 우울II	.625**	.477**	.620**	-.583**	-.581**	-.626**	.822**	1	
	9. 우울III	.560**	.456**	.592**	-.565**	-.655**	-.606**	.771**	.800**	1

* $p < .05$ ** $p < .01$ *** $p < .001$

5. 연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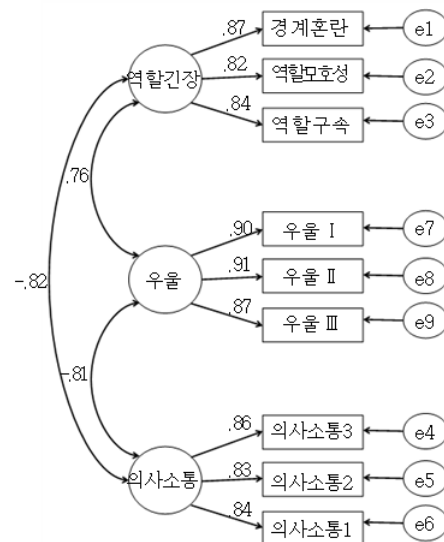
1) 연구 변인의 측정모형 검증

연구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잠재요인이 측정 변인에 의해 측정되는지 확인하였다. TLI와 CFI는 .90이상일 경우, RMSEA는 .10 이하일 경우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된다(홍세희, 2017). 확인 결과 측정모형의 χ^2 는 75.659($p < .001$), TLI는 .952, CFI는 .968로 모두 .90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RMSEA 또한 .098로 나타나 본 자료가 구조방정식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Wang & Wang(2012)의 기준에 따라 확인하였을 때, .04 이상으로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6〉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2	df	p	TLI	CFI	RMSEA
측정모형	75.659	24	.000	.952	.968	.098



(그림 1)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표 7〉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잠재변수	측정 변수	Estimate		S.E.	C.R.
		B	β		
역할긴장	경계 혼란	1	.872		
	역할 모호성	.964	.820	.064	15.062***
	역할 구속	.578	.835	.037	15.490***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	의사 소통3	1	.857		
	의사 소통2	.962	.830	.063	15.153***
	의사 소통1	.827	.836	.054	15.299***
우울	우울I	1	.901		
	우울II	1.130	.911	.055	20.642***
	우울III	1.207	.869	.064	18.743***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75.659	24	.000	.952	.968	.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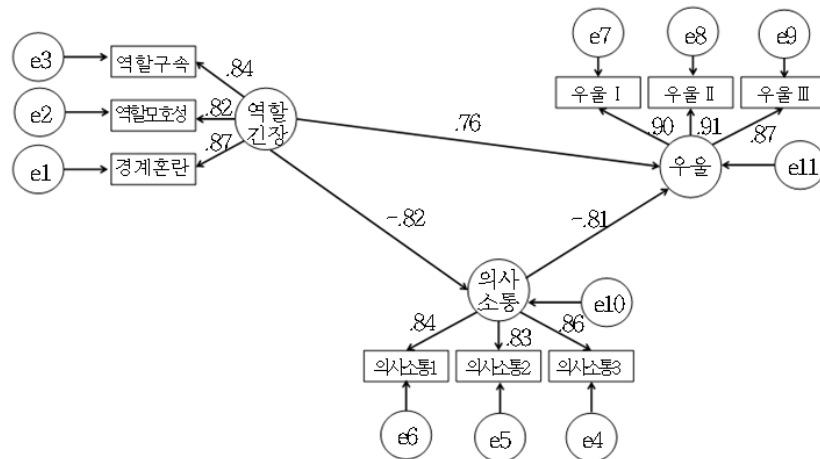
2) 연구모형 검증

다음으로 연구모형이 구조방정식에 적합한 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연구모형의 χ^2 는 75.659($p < .001$), TLI는 .952, CFI는 .968로 모두 .90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RMSEA 또한 .098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결과, 의사소통이 역할긴장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할긴장이 의사소통($\beta = -.131, p < .001$)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우울에 직접적 영향($\beta = .022, p < .01$)을 여전히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은 우울($\beta = -.275, p < .001$)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경로	Estimate		S.E.	C.R.	p
	B	β			
계부모 역할긴장 → 의사소통	-.131	-.823	.011	-12.337	.000
계부모 역할긴장 → 우울	.022	.287	.008	2.72	.007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 → 우울	-.275	-.573	.052	-5.278	.000



[그림 2]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3)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방법은 신뢰구간을 95% 수준으로 설정하고 실행한 뒤 신뢰구간의 범위 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으로 5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역할긴장이 의사소통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경로계수는 .472로 나타났다.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이 .295와 .696으로 '0'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구조모형 및 경로계수를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즉, 계부모의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 수준은 계부모의 역할긴장과 우울을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다음으로는 전체집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부모 역할긴장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계부와 계모의 경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1) 형태동일성 검증

먼저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형태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형태동일성 검증은 각 집단 내 잠재변인이 동일한 측정변수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홍세희(2017)에 의하면 각 집단의 모형적합도가 유의할 경우 형태동일성이 유의하다고 하였다. 형태동일성 검증 결과 χ^2 는 101.353($p < .001$), TLI는 .949, CFI는 .966으로 모두 .90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RMSEA 또한 .070으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어 남녀 집단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형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재혼가족 계부모의 역할긴장과 우울의 관계에서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연구 - 계부모의 성차를 중심으로 -

〈표 10〉 측정동일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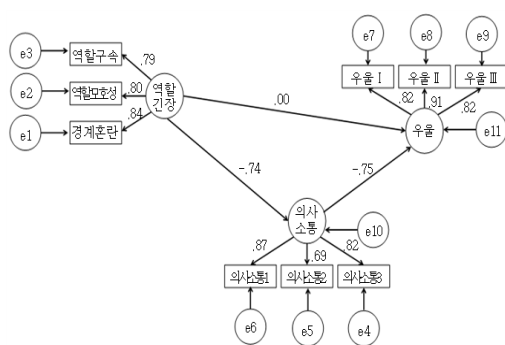
	χ^2	df	p	TLI	CFI	RMSEA	$\Delta\chi^2$
형태동일성	101.353	48	.000	.949	.966	.070	6.711
측정동일성	108.064	54	.348	.954	.966	.067	

〈표 11〉 구조동일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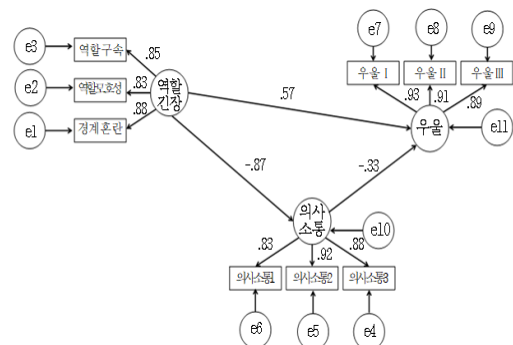
	χ^2	df	p	TLI	CFI	RMSEA	$\Delta\chi^2$
측정 동일성	108.064	54	.348	.954	.966	.067	9.298
구조 동일성	117.362	57	.026	.952	.962	.069	
계부모 역할 긴장 → 우울	115.150	55	.008	.950	.962	.070	7.086
계부모 역할 긴장 → 의사 소통	109.646	55	.208	.955	.965	.067	1.582
의사 소통 → 우울	112.141	55	.043	.952	.964	.068	4.077

〈표 12〉 남녀집단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성별	경로	Estimate	S.E.	C.R.	P	β
남	계부모 역할긴장 → 의사소통	-.121	.018	-6.659	.000	-.737
	계부모 역할긴장 → 우울	0	.011	-.002	.998	0
	의사소통 → 우울	-.329	.072	-4.561	.000	-.747
여	계부모 역할긴장 → 의사소통	-.139	.013	-10.304	.000	-.874
	계부모 역할긴장 → 우울	.044	.012	3.541	.000	.570
	의사소통 → 우울	-.158	.076	-2.078	.038	-.326



〔그림 3〕 계부의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그림 4〕 계모의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2) 측정동일성 검증

형태동일성이 성립하여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각 집단별 잠재변인이 같은 방식으로 측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 결과 측정동일성 제약모형과 비제약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성립하였다. 즉, 남녀모형 간의 잠재변인이 동일하게 구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으로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함수식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며 전체 모형에서 남자의 요인계수와 여자의 요인계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구조동일성 검증

구조동일성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잠재변수 간의 경로계수를 동일화 제약한 모형과 측정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구조동일성이 기각되어 잠재변수들의 인과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경로를 제약한 부분에 대해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계부모의 역할긴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의사소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계부의 경우는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 수준이 가지는 매개효과로 인해 역할긴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계모의 경우는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여전히 역할긴장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 영향이 유의미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수준이 계부모의 역할긴장과 우울 간

의 관계를 매개함에 있어서 성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 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계부모의 역할긴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이 그 관계를 매개하는지와, 그러한 관계양상이 계부와 계모 각각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찰하였다. 다음에서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재혼가족 계모들의 우울수준은 임상적 주의를 요하는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척도로 사용한 SDS(Zung, 1965)의 경우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임상적 우울정도의 판정기준인 47점(이영호, 송중용, 1991)을 기준으로 볼 때 계모의 우울 평균점수가 임상적으로 경증 수준의 우울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동일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외상사건을 경험한 성인의 우울 평균점수인 47.70점(나현주, 2018)과 비교해도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점수이다. 김연옥(2002)의 연구에서 계모들의 우울 정도가 임상적으로 경증 및 중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46.8%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경우 53.9%의 계모들이 임상적 우울 기준인 47점 이상을 나타내 계모들의 우울문제가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우울은 본인의 건강문제일 뿐 아니라 자녀들, 특히 어린연령의 자녀들의 정신건강문제 및 행동문제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Ashman, Dawson & Panagiotides,

2008)으로, 임상적 개입의 중요성이 있다. 재혼 계모들의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계모 뿐 아니라 계부의 우울수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계부의 37.6%가 임상적으로 우울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계부들의 역할긴장이나 우울 수준이 계모에 비해 낮다 할지라도, 재혼부부로서 새로운 가족형태를 이끌어나가는 일은 부모로서도, 배우자로서도 쉽지 않은 일임을 반증하는 결과이며, 재혼가족의 비중이 높아져가는 오늘날, 재혼가족의 기능향상을 위해 계부모의 정신건강에 보다 큰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계부와 계모는 재혼을 통해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양육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계부모의 역할긴장과 우울의 수준은 계모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계부들보다 계모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할긴장수준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결과(김효순, 2006; Fellmann et al., 2008; Whitsett & Land, 1992b)를 거듭 확인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계모들의 높은 역할긴장수준은 이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우울을 유발하였을 것이라 이해된다. 왜냐하면, 계모들의 우울을 설명하는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닌 변수가 역할긴장이었기 때문이다(김연옥, 2002).

계모에게 부여되는 계부모의 역할긴장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초혼가족의 부모역할긴장에 비해 극복이 쉽지 않다. 전혼자녀와 더불어 시작하는 재혼은 가족발달주기의 상이성, 신혼기 없이 바로 자녀양육기로 진입하는 발달단계의 전도현상, 계자녀가 경험하는 ‘충성

심 갈등’으로 인한 애착형성의 어려움, 계부모-친부모-자녀 간에 발생가능성이 높은 삼각관계, 모호한 가족경계, 계부모역할에 대한 규범의 부재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재혼가족이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힌다(김효순, 2015; Bray, 2005; Ganong & Coleman, 2004). 이 역할긴장 부분에서 계모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이들의 우울이 임상적 주의를 기울일만큼의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계모들의 역할긴장 해소를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계부모의 역할긴장은 부분적으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라는 매개요인을 거쳐 우울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부모가 역할긴장을 경험하게되면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이 위축되게 되며($\beta = -.82$). 이러한 위축된 의사소통이 계부모의 우울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역할긴장이 직접적으로 우울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계부모의 역할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더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역할긴장은 이러한 소통을 위축시키면서 대화를 회피하거나 비난이나 회유 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역할긴장은 해소되지 못하며 우울수준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계부모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친자녀를 잇는 혈연관계에 비하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으며, 공유된 역사나 문화 측면에서도 매우 취약한 외부자적 위치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혼가족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끈은 배우자이며, 그런 이유로 계부모 역할에서 배우자의 정서적 혹은 실질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Ganong & Coleman, 2004;

Papernow, 2015). 특히, 계부모-배우자 간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역할모호성이나 경계모호성, 소외감이나 역할과중 등을 경험하는 계부모의 역할긴장을 완화시키는데 실질적 도움이 된다. 그러나 역할긴장 자체가 부모하위체계의 의사소통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 관계를 조절해줄 수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은 임상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계모들의 경우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수준을 계부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계모들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의 양과 질, 형식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재혼부부들의 의사소통 양식이나 갈등해결 및 문제해결능력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결과가 드물지 않았기 때문에(김효순, 2015; Afifi & Schrodt, 2003; Hetherington, 1992; Prado & Markman, 1999)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수준에 대한 계모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에 대해 상기 선행연구결과와의 통합적 해석이 필요하다. 재혼부부가 계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운 주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적 의사소통을 해나가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계부모-배우자 간 대화에 대한 계부모의 성별로 다른 평가를 고려하여 대화의 방법과 내용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계부모 역할긴장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계부의 경우는 완전매개, 계모의 경우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 성별에 따라 매개모형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계부들의 경우 역할긴장

수준이 높을 때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저하되면서 그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며, 역할긴장수준이 직접적으로 우울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계모들의 경우는 역할긴장이 직접 우울감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역할긴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매개하는 정도가 남성에게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계부들이 아내의 친자녀의 부모역할을 하면서 역할긴장을 경험할 때 대체로 아내와의 소통수준이 낮아짐으로써 우울에 이른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계모들은 남편과의 소통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통해 우울에 이르기기도 하지만, 역할긴장 그 자체가 우울로 연결되기도 하는 상이한 경로를 보여준다. 이러한 계부와 계모의 상이성은 재혼 계부모들의 역할긴장문제를 임상에서 다룰 때 고려해야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2. 제한점 및 제언

이상의 결론은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을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계부모에 대한 대면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터넷카페와 리서치회사를 통해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적 방법으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방법이 대면적 조사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와 다른 편향성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인터넷에 친숙하고 다소 고학력 고소득인 계부모가 연구대상으로 표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계부모 개인의 시각에서 지각한 역할긴장,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 우울에 대한 응답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한 것이므로, 가족원 간의 역동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계부모와 그의 배우자를 쌍으로 표집하거나, 개별 사례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계부모와 그 배우자의 입장에서 역할긴장과 의사소통, 그리고 우울 간의 관계를 탐색하게 된다면, 보다 확장되고 입체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재혼가정 안에서 계부모가 경험하는 역할긴장과 우울,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양적자료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및 매개효과 등을 규명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특히 지금까지 연구대상으로 잘 포함되지 못했던 계부를 같은 비중으로 다룸으로써 재혼계부모의 생활세계의 성차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을 본 연구의 의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경험에 기초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될 것을 제언한다. 첫째,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계모의 역할긴장을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계부모-배우자 간 의사소통 외에 계부모, 특히 계모의 역할긴장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개인적, 환경적 변수들을 연구하여야한다.

둘째, 계부모 역할긴장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역할긴장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역할긴장 척도 하위영역이 한국인의 의식과 상황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연구자는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영역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비동거 친부모와의 왕래수준, 남녀의 부모역할기대의 차이, 재혼 남녀에게 부여하는 사회적 인식 등에 있어서 한국과 척도개발처인 미국과의 차이를 무시하기는 힘들다. 추후 연구 진행 시 한국형 척도 개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혼가족의 유형별 접근이 필요하다. 재혼은 전혼여부, 전혼혼인지속연수, 재혼의 형태, 재혼 상태, 혼인신고유무, 계자녀의 유무, 계자녀의 성별과 나이, 재혼 후 자녀유무, 재혼 후 자녀의 성별과 나이 등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다. 이러한 재혼의 특성은 재혼가족마다 다른 가족 문제를 가지며 가족욕구가 다름을 의미한다. 이에 추후 연구 진행 시 재혼가족을 유형별로 세분화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권정혜 (2000). 지각된 배우자의 비판과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697-712.
- 김다애 (2019). 재혼가족 계부모의 역할긴장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연구-계부모의 성차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덕일, 박재우, 송원영, 이지연 (2009). 한국판 ENRICH 결혼만족 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7, 11-33.
- 김연옥 (1999). 재혼가정 내 모의 역할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3, 41-62.
- _____ (2002). 재혼가정 내 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49, 319-342.
- 김효순 (2006). 재혼가족의 역할긴장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부모와 청소년 계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5). 재혼가족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향 - 새부모 · 새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지*, 15(2), 262-280.
- 김효순, 엄명용 (2007). 청소년 자녀가 있는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21,

- 75-102.
- 김효순, 하준광 (2010).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지*, 17(4), 67-101.
- 나현주 (2018). 외상사건 스트레스와 부정정서의 관계: 이중체계모델에 의한 접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애, 정혜선 (2011). 결혼이민여성의 부부의사소통, 부부 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아동복지연구*, 9(2), 59-84.
- 박은주 (2004). 재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태영, 김태한 (2010). 재혼가족의 가족갈등 사례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15-28.
- 송말희, 이정우, 김수진 (2011). 도시 부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연구: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 55-67.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0(1), 98-113.
- 이윤주, 김진숙 (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5), 2229-2249.
- 이정운, 장미경 (2008). 기혼여성의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부모역할 자긍심의 매개 및 중재효과. *상담학 연구*, 9(2), 339-352.
- 정현숙, 유계숙, 임춘희, 전춘애, 천혜정 (2000). 재혼가족에 대한 실태 및 재혼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4), 1-19.
- 차연실 (2004). 재혼모의 역할긴장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8). 2018년 혼인이혼 통계. <http://kostat.go.kr>
- 홍세희 (2017). 구조방정식 모형의 다양한 확장. 서울: 박영사.
- Adamsons, K., O'Brien, M., & Pasley, K. (2007). An ecological approach to father involvement in biological and stepfather families. *Fathering: A Journal of Theory, Research & Practice about Men as Fathers*, 5(2), 129-147.
- Affif, T. D., & Schrodt, P. (2003). Uncertainty and the avoidance of the state of one's family in stepfamilies, postdivorce single parent families, and first marriage familie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4), 516-532.
- Ashman, S. B., Dawson, G., & Panagiotides, H. (2008). Trajectories of maternal depression over 7 years: Relations with child psychophysiology and behavior and role of contextual risk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0(1), 55-77.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78-102.
- Bray, J. (2005). Family therapy with stepfamilies, in Lebow, J. L. (ed). *Handbook of clinical family therapy*. (pp. 497-515).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Fellmann, I. E., Galán, M. J. C., & Lloreda, M. J. H. (2008). Stepparent role strain and psychological distress. *Psicobema*, 20(4), 732-738.
- Ganong, L. H., & Coleman, M. (2004). *Stepfamily relationships: Development, dynamics, and interventions*.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ress.
- Golish, T. D. (2003). Stepfamily communication strengths: Understanding the ties that bind.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1), 41-80.
- Hart, P. (2009). On becoming a good enough stepmother.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7(2), 128-139.
- Hetherington, E. M. (1992). Coping with marital transitions: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7(2-3), 1-14.
- Olson, D. H., Fournier, D. G., & Druckman, J.

- (1982). *Enrich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ENRICH)*.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 Papernow, P. L. (2015). Therapy with couples in stepfamilies. in Gurman, A. S. Lebow, J. L., Snyder, D. K. (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5th ed). (pp. 467-488). New York: The Guildford Press.
- Prado, L. M., & Markman, H. J. (1999). Unearthing the seeds of marital distress: What we have learned from married and remarried couples. in Cox, M. J., & Brooks-Gunn, J. (Eds.) *Conflict and cohesion in families: Cause and consequences* (pp.51-85). Mahwah, N.J: Earlbaum.
- Shapiro, D. N., & Stewart, A. J. (2011). Parenting stress, perceived child regard,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stepmothers and biological mothers. *Family Relations*, 60(5), 533-544.
- Visher, E. B., & Visher, J. (1996). *Therapy with stepfamilies: A guide to working with stepparents and stepchildren*. New York: Taylor & Francis.
- Wang, J., & Wang, X.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using Mplus*. West Sussex: Higher Education Press.
- Whitsett, D. P., & Land, H. M. (1992a). Role strain, coping, and marital satisfaction of stepparents. *Families in Society*, 73(2), 79-92.
- _____ (1992b). The development of a role strain index for stepparents. *Families in Society*, 73(1), 14-22.
- Zung, W. W. W.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6, 543-547.

☐ 논문접수일 : 2019년 11월 06일
☐ 심사시작일 : 2019년 11월 28일
☐ 게재확정일 : 2019년 12월 11일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uple Communication between the Relationship of the Stepparents' Role Strain and Their Depression,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Da Ae Kim

(Graduate School of Welfare & Counselling,
Sangmyung University)

Eunsuk Cho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explored the mediating effect of couple communication between the relationship of step-parents' role strain and their depression, focusing on the gender difference of the stepparent.

Methods: 226 stepmothers and stepfathers answered the survey questionnaire administered onlin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s.

Results: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which showed higher role strain and depression levels along with lower couple communication level among stepmothers in contrast to stepfathers. Couple communication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s of role strain and depression. However, the mediating model was different by gender. Couple communication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strain and depression among stepfathers, while in the case of stepmothers, the direct effects of role tension to depression was still significant in addition to couple communication's partial mediating effect.

Conclusions: The results imply the importance of marital communication in intervening the harmful effects of stepparents' role strain on their depression. Moreover, the gender differences shown from the results need to be further explored.

Keywords: *stepparent, role strain, depression, couple communication, gender difference*
